

## 혈관 수술에 대한 임상적 고찰

고려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

류영진 · 조원민 · 조성준 · 손영상 · 최영호 · 김학제

최근 혈관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는 신속한 심혈관 조영술과 전산화 단층 촬영 등 진단방법의 발달, 효과적인 인조혈관의 개발 및 수술후 항응고제의 사용과 더불어 혈관수술의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합병증을 줄이고 향상되는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.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는 1986년 3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시행한 439례의 혈관수술을 원인별 질병분류와 진단방법 및 수술 치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.

가장 많은 수술례는 동정맥루 수술로 356례 이었으며, 이중 39례가 인조혈관을 사용하였고 1년 개통률은 96%였다.

나머지 83개의 수술례는 폐쇄성 혈관질환이 46례 (55%), 동맥류성 질환이 15례 (19%), 정맥류성 정맥질환이 12례 (14%), 그밖에 자상에 의한 혈관파열등의 혈관 손상이 10례 (12%)의 비율이었다. 환자의 연령분포는 50~60대가 37%로 가장 많았고 남녀비는 1.42:1로 남자에게 현저히 많았다.

폐쇄성 혈관질환에서 임상증세로 가장 흔한 것은 하지의 동통(78%)이며, 그밖에 파행 (claudication 39%), 냉감(56%), 피부변색(25%) 등을 호소하였다. 동맥의 폐쇄부위는 총장골동맥이 17례로 가장 많았고 대퇴동맥이 14례, 대동맥 분지부가 4례, 슬와동맥이 4례이고 그밖의 부위가 7례였다. 혈전 및 색전제거술을 14례에서 시행했고 교감신경 절제술을 7례에서 했는데, 우회수술과 동반하여 같이 시행해준 예도 많았다. 대부분은 인조혈관을 사용하여 우회수술을 하였는데 Aorto-femoral이 13례, Femoro-popliteal이 10례, Axillo-femoral이 7례 이었고 8례에서는 2군데 이상에 우회술을 시행하였다. 합병증은 8례에서 발생하였는데 출혈이 3례, 창상감염이 2례, 급성신부전이 1례, 뇌출혈이 1례, 족하수(foot drop)가 1례 있었다. 수술에 사용한 인조혈관은 PTFE (Polytetrafluoroethylene, Gore-Tex)가 대부분으로 23례에서 사용했고 그밖에 Woven 혹은 Knitted Dacron 등을 사용했고 수술후 항응고제로 Aspirin과 Ticlopidine를 병행하여 전례에서 투약했다. 수술후 1년 개통률은 87%였다.

동맥류성 질환은 복부대동맥류가 12례였고 대퇴동맥류가 2례, 슬와동맥류가 1례이었다. 복부대동맥류중 2례가 파열되어 있었고 전례에서 동맥류 절제술과 인조혈관 치환술을 하였는데 2례에서 사망하였고 출혈 1례, 상부장관 출혈 1례의 합병증이 발생했다.